

국제희극협회 ITI

공연예술세계조직과 세계무용연맹

2023년 4월 29일 세계 춤의 날

헌사자: 양리핑, 중국

무용가, 안무가



한국어(번역문)

2023년 세계 춤의 날 메시지

춤은 우리 인간들이 세계와의 소통하는 방식이다.

몸짓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본능적인 언어이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언어 표현을 불가능해도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가장 먼저 습득한다. 춤은 바로 이러한 '최초의 언어'로 구성된 예술이다.

사람들이 춤을 추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의 고향에서 어렸을 때 할머니는 나에게 "춤을 추는 것은 태양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태양은 우리에게 따뜻함과 광명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춤으로 그것을 찬양해야 한다.

들판에서 풍년이 들면, 우리는 춤으로 땅에 대한 감사와 내면의 기쁨을 표현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날개를 편 공작처럼 춤을 추어 사랑을 구하며, 질병이 났을 때에도 신비한 춤으로 병마를 몰아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정신세계에서는 어릴 때부터 춤이 우리의 삶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다. 춤은 우리(인간)가 세상 만물과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내 고향에는 "발이 있는데 춤을 추지 않으면 헛되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속담이 있다. 춤은 자연과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데 춤은 자연이고 춤은 생활이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춤의 본질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대를 잇기 위해, 어떤 사람은 즐기려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려고.... 나는 생명의 방관자다. 꽃 한 송이가 어떻게 피고 지는지, 흰 구름은 어떻게 떠다니고, 감로는 어떻게 맺히는지...

그래서 나의 창작 영감은 모두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나온 것이다. 달빛의 휘영청 밝음, 날개를 편 공작 새, 나비가 어떻게 굳은살을 깨는지, 잠자리가 어떻게 수면을 건드리곤 날아오르는지, 애벌레가 어떻게 허리를 비틀는지, 개미가 어떻게 줄을 서는지...

여러 해 전 어느 날, 나의 인생에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인 <작의 영>(雀之靈)이 발표하였는데,

이 <작의 영>이라는 작품은 오늘날 우리가 부른 '공작춤'이다. 공작은 지금도 세상에 실재 존재하고 있는 동물로, 봉황을 닮아 용과 마주보는 신성함이 비치기 때문에 영조(靈鳥)에 속한다. 그것은 동양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징이다. 나는 공작춤을 추다가 공작의 영혼을 찾았다.

인류 전체의 춤 문화는 넓고 광활하다. 그 문화와 속성을 공유하며 사람들은 지혜로 생활, 자연, 생명에서 춤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그 풍부한 춤 문화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계승하고 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심신을 자양하며 세계와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나의 <운남영상>(雲南映象), <장비>(藏祕), <평담영상>(平潭映象)과 같은 작품은 모두 전통적인 원시 생태무용이었다. 그들은 땅에서부터 왔으며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전승하여 세계에 소개하여야 한다.

이 작품들은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원시 생태무용의 매혹적이고 문화적 속성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해주었고, 나는 무용수로서 수십 년 동안 춤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으며, 국제무대를 위한 실험적인 당대 작품인 <십면매복>(十面埋伏), <봄의 제전>(春之祭) 등을 창작하도록 초청받았다.

나는 나의 예술관의 형성은 내 고향의 자연 환경, 나의 개인적인 시대 생활 경험 그리고 넓고 심오한 동양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세계 문명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의 의의는 세계를 위해 다양성, 다원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법 자연', '천인합일'과 같은 동양 철학의 사상관념은 우리 동양의 지혜와 심미이자 나의 예술 창작에 있어서 항상 추구하는 것이다. 땅, 산수, 하늘과 같은 자연..... 우리는 자연을 경외하고 그 자연으로부터 학습하여야 한다.

무용수, 무용안무자들은 이 세상의 애환을 더 자세히 듣고, 발견하며, 천만 년 동안 우리가 펼쳐온 자연·생활·세상과의 대화를 우리의 춤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오늘도 우리민족의 춤 문화를 끊임없이 세계와 함께 나누고 있다. 춤이나 춤 작품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세상의 모든 무용 종사자들과 함께 우리의 춤으로 천지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계속 전해지길 바란다.

생명이 끊이지 않는 춤은 멈추지 않는다.